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85)(11/9/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1 장 신실한 영혼의 내면에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 1-2 절

3 권에 대한 간략한 해설: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들어 있는 네 권 중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다. 3 권은 그리스도와 제자 사이의 담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다.

시 85:8 -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삼상 3:9 -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시 119:125 -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신 32:1-2 - 1.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1. <제자> “내가 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리이다”(시 85:8)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받는 영혼은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이 작은 소리로 속삭이시는 음성은 잘 알아듣는 반면에, 이 세상의 속삭임들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귀는 복이 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듣지 않고, 내면에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음성만을 경청하는 귀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리고,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응시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면으로 천착해 들어가서, 하늘의 신비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하여,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데 힘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세상의 모든 방해물들을 다 떨쳐 내버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것을 명심하고, 육신적인 욕망들의 통로를 닫아 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 <그리스도> 네가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구원이고, 너의 평강이며, 너의 생명이니, 너는 내 안에 머물라. 그러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모든 덧없는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구하라. 세상에 속한 덧없는 모든 것들은 너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창조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모든 피조물이 네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덧없는 것들을 버리고, 너의 창조주에게 신실하게 행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참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과 해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신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 요 10:2-4, 27 - 2.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창 12:4 -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기준을 삼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사람은 죄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으며, 양이 목자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에 반응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외면 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 애쓴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성도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의 문제들을 발견해 간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고침 받고, 치유 되며, 회복을 경험한다.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면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온 존재를 새롭게 한다. 시 19:7-8 - **7.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 시 1:1-3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세계 곳곳에 보내신 말씀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3. 가난한 국가들에 코로나 백신이 속히 공급되게 하시고, 하루 속히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